

날개 잃은 금호, 재계 7위서 60위권 밖으로

아시아나항공 31년만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매각 박세창 사장 "매각 자금 금호산업·금호고속에 사용 그룹 재건"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호남 최대 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그룹으로 바뀌게 됐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31년 만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면서다. 한때 재계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렸던 금호그룹은 60위권 밖으로 밀려나 그룹의 면모를 잃고 중견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호남 대표기업 추락 안타깝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마무리되면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 등 3개 계열사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자산 규모 5조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금호산업 매출은 1조3767억원, 금호고속은 4232억원이었다. 주력 기업의 매출을 합쳐도 2조원을 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7조1833억원으로

실상 그룹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지역민과 경제계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역 대표 기업이 사라졌다는 정신적 박탈감에서다. 지역 경제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호남의 자원으로 삼았다. 중고택시 2대로 창립해 재계 7위까지 오른 금호그룹의 저력이 자랑스러웠고, 그룹의 뿌리인 호남을 잊지 않고 제조·운송·문화·인재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다.

◇재계 7위서 60위권 밖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인수·합병(M&A) 승부사로 불리던 박삼구 전 회장이 2002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사세 확장기를 맞았다.

박 회장은 공격적인 경영으로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잇달아 인수했고 당시 그룹의 자산 규모는 26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재계 순위 7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계열사 인수로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그룹의 차입금 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앞선 데 맞춘 격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닥치며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2009년 재무구조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경영권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은 매각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하면서 그룹 재건에 나섰지만, 금호타이어 인수 작업이 자금 압박으로 무산되면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재계는 박 전 회장의 무리한 차입 경영이 결국 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

공을 태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자 지적한다.

◇박세창 사장 "매각 자금 미래에 사용"= 금호산업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구조 인수 가격 협상을 벌이게 된다. 시장에선 4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은 매각 자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우선 사용할 전망이다. 남은 자금은 금호그룹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호는 우선 고속과 건설 등 기존 사업에 주력하다가 신규 사업 진출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44) 아시아나IT 사장도 그룹 재건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박 사장은 지난 7월 "아시아나 매각으로 금호산업에 유입되는 자금은 차입금 상환 등 그룹의 장기적인 미래에 사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0.92 (+16.83)	↑ 금리(국고채 3년) 1.56 (+0.06)
↑ 코스닥 665.14 (+3.77)	↓ 환율(USD) 1160.80 (-6.00)

효성, 유니클로 장악 발열내의 시장 공략

무신사와 협업 발열내의 출시 조기를 사용해도 발열 기능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효성은 앞으로 국내·외 패션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 국산 소재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효성과 협업하는 무신사는 2001년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지금은 온라인 패션 커머스로 발전한 업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해외업체가 주도했던 국내 발열내의 시장에서 효성의 기술력으로 진가를 발휘하겠다"며 "광발열 폴리에스터를 비롯해 스판덱스, 탄소섬유 등 발열 효과를 낸다.

보온성과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뛰어난 뿐 아니라, 세탁기와 건

효성이 일본 유니클로가 장악한 발열내의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티앤씨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협업해 발열내의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효성과 무신사가 함께 출시한 발열내의 '마이히트'는 효성이 국산화한 소재인 발열 폴리에스터 '에어로히트 익스트림'(aeroheat EX)으로 만들었다. 원사에 함유된 미세한 물질이 태양·조명 등으로부터 빛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방사해서 발열 효과를 낸다.

보온성과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뛰어난 뿐 아니라, 세탁기와 건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 34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2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2019년 제2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열고 34개 기업과 신규 투자 협약을 맺었다. <한전 제공>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2일 한전 본사에서 광주, 전남, 나주시 그리고 34개 신규협약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너지밸리 산학연 R&D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한전이 에너지밸리에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기업은 총 430개사로 2020년 500개 기업유치 목표 대비 86%를 달성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이 확정돼, 향후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위한 기반이 강화됐다"며 "융복합단지 지정에 계기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가속화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3세대 'K5' 당당하고 강렬해졌다

다음달 출시 앞두고 외장 공개 일, 기존 디자인의 파격적인 진화 등으로 탈바꿈했다. 2850mm의 동급 최대 수준 휠베이스와 기존 대비 50mm 늘어난 전장(4905mm), 25mm 커진 전폭(1860mm) 등으로 공간성이 크게 향상됐다.

전고는 기존보다 20mm 낮아져 다이내믹한 스포티 세단을 연상케 한다. K5 고유의 디자인 특징인 측면 유리 크롬 몰딩은 더 두꺼워졌고, 트렁크 리드까지 길게 연결해 과감하고 날렵한 미래지향적 패스트백 이미지를 구현했다.

리어룸비레프트의 그래픽은 전면부 DRL과 동일하게 심장박동 형상을 적용하는 등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기아차는 카카오톡에서도 신형 K5의 외장을 3차원(3D)으로 공개한다. 오는 25일까지 카카오톡 3D 스카이프에서 그래픽으로 구현된 신형 K5를 찾는 고객들에게는 애플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측면부는 확대된 제원, 패스트백 스타

기아차 3세대 신형 'K5'가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베일을 벗었다.

기아자동차는 '역동성의 진화'를 디자인 콘셉트로 재탄생한 신형 K5의 외장 디자인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전면부는 혁신적인 신규 디자인 요소가 대거 적용됐다. 기아차 디자인의 상징이었던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와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고, 모든 조형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진화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의 디자인 정체성이 그릴에서 전면부 전체로 확장됐다.

진화된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은 향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릴 패턴과 주간주행등(DRL)은 한층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고급화됐다.

측면부는 확대된 제원, 패스트백 스타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3분기 매출 줄었어도 영업이익 증가

올해 3분기 (주)광주신세계 총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9.3%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세계가 공개한 '2019년 3분기 실적'에서 광주신세계 올 3분기 영업이익(별도 재무제표 단순 합산 기준)은 1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억원에 비해 10.4% 증가했다.

총 매출액은 10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7억원 보다 9.3% 떨어졌다. 전년 동기 매출 911억원 보다는 11.1%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이마트 광주점 점포에 대한 연 임대료 44억원이 이익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매출로 인한 영업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1st A-체크카드·1st Y-체크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1일 '1st A-체크카드'와 '1st Y-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1st A-체크카드'와 '1st Y-체크카드'는 기본 서비스로 전월실적과 캐시백 한도 상관없이 국내외 전자매점 이용금액의 0.2%를 캐시백하고, 특히 '1st Y-체크카드'에는 BC카드와 협력해 애니메이션 '위베어 베이스' 캐릭터를 실었다.

'1st A-체크카드'는 추가 서비스로 커피·인터넷쇼핑·주유·백화점·대형할인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2%를 추가 캐시백하고, 특별 서비스로 골프, 학원, 차량정비 가맹점 이용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 한다.

'1st Y-체크카드'는 추가 서비스로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추가 캐시백한다.

/최재호 기자 lion@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